무안기업도시 감자 결의 '새판짜기'

〈減資〉

기존 출자사들 모든 권한 무안군에 위임

외국자본 유치 등 새 출자구도 구성 나서

무안군이 최근 대폭적인 자본금 감자(減資)를 결의한 무안기업도시개발(주)(이하 MECD)의 주주총회 이후 새판짜기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안군은 22일 "국내단지 개발사업은 경제시장 악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4월 프라임을 주관사로 하는 기존 출자사들이 사업추진의 모든 권한을 무안군에 일임한 상태였다"면서 "무안군도 그동안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새로운 출자구도를 구성하기 위해 항공·물류 기업인 D항공사와 추진상황과 개발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갖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D항공사가 긍정적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미국 등 해외자본이 MECD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함께 추진중에 있으며,사업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정부 투자기관과의 출자협의도 진행중이다.

또 MECD 출자를 위해 발행했던 지방채 160억원의 경우 전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출자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출자구도의 확정과 MECD 개발계획 승인시점에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이 지연돼 출자를 못하게 되자 전남도와 협의,일단 상환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재 일반 금융권에 의한 자금유입 금리가 2%대에 머물고 있는데 굳이 4%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할 필요가 적어졌다"면서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출자구도에서는 군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무안군의 출자규모를 가급적 축소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이미 예산부서와 상급기관 승인이 필요없는 범위(50억~72억원) 내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협의해 놓은 상태이며,MECD 출자구도가 확정되면 즉시 출자가 가능하도록 채비를 갖춘 상태다.

무안군 관계자는 "MECD의 감자결의는 기존 출자사 간 내부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일 뿐 감자가 됐다고 해서 MECD 추진이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새롭게 출자를 하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인수하려는 지분이 적을수록 기존 출자사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출자참여의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에 감자결의는 새로운 출자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신안 관광사진 전시회 목포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22일 터미널 2층에 전시된 신안군 관광사진을 감상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비금도 하트해변 등 신안군의 비경을 담은 작품 45점을 선보인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무안군 내달 25~26일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초의선사 탄생 제 223주년을 기념하는 '초의선사 탄생문화제'가 오는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초의선사 탄생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문화제에는 원어민 강사 등 외국인 200여 명을 특별초청해 글로벌 축제로 꾸며진다. 축제 첫째 날인 25일에는 초의선원(茶 교육관)에서 외국인 전통 행다법 시연과 초의선사 학술세미나와 향토음식 경연대회, 초의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등이 열린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슬로 시티 증도 현장학습 명소로

작년 20만명 찾아…전국서 체험문의 쇄도

아시아 최초 슬로 시티로 지정된 신안군 증도지역이 현장학습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신안군은 올해 들어 행정안전부 중견 리더(전국 지자체 사무관) 직무 특화과정 교육생 50명이 지난 18일 현장학습을 위해 증도를 찾은데 이어 오는 5월 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광역시 걸스카우트 대원과 교장단 1천200명이 태평 염전체험, 소금박물관, 갯벌생태공원 등 현장 체험 학습차 방문하기로 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체험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현장체험과 관광을 위해 증도를 찾은 사람이 2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며 "올해는 슬로시티 관련 관광상품과 다양한 이벤트가 계획돼 더 많은 체험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안군은 슬로시티 인증 2년째를 맞아 전남대 생태관광연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슬로 푸드와 다양한 체험 행사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슬로시티 국제연맹총회를 유치하고자 슬로시티 지원팀도 만들었다.

한편 신안군은 오는 5월 말 증도면 1천32가구 전 주민들에게 '친환경 세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진도군 농기계 사업 10억원 투입

진도군이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부족한 노동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기계 지원 사업에 예산 10억원을 투입한다.

진도군은 "이농 현상과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 10억원(도비 1억원, 군비 9억원)의 예산을 투입, 곡물건조기와 보행형 관리기, 동력 분무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대폭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산 5억원 보다 2배 많은 10억원을 지원, 보다 많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특히 관내 농기계 대리점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관내 사후봉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기종 확보, 적기 공급, 농기계 사후봉사 등 효율적인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도군이 농업인을 보호하고 야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운기 채양구 설치 지원사업 191대를 전액 보조로 영농기 이전인 지난 2월 초 완료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목 포	(061)276-9200	나주시	(061)332-5544
여 수	(061)653-8444	강 진	(061)434-6830	나주군	(061)332-7764
광 양	(061)792-8111	무 안	(061)452-8535	담 양	(061)383-8116
순 천	(061)746-8111	신 안	(061)243-3758	영 암	(061)473-2340
고 흥	(061)842-2121	완 도	(061)554-6677	장 성	(061)393-1717
구 례	(061)783-8111	영 광	(061)351-0055	장 흥	(061)863-8822
곡 성	(061)362-8111	진 도	(061)543-0100	화 순	(061)374-4423
보 성	(061)853-1190	함 평	(061)324-8111	광 산	(062)944-0444
		해 남	(061)534-5151		

법원 경매부동산의 표적 공고